

## 자기 행위를 살피라

학개 1:1-11

### 들어가며

먼저 소그룹 인도자로부터 학개서의 간단한 배경을 듣습니다.

### 1. 빛나간 태도, 비참한 현실 (1-6)

1.1. (관찰) 하나님께서는 먼저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1:4 이 ( )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 )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1.2. (관찰)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 1:2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 ) 하느니라

1.3. (관찰) 그들의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 1:5 ...너희는 너희의 ( )를 ( )
- 1: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 )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 )

1.4. (나눔1)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안전만을 도모하려는 그들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되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니 15년 동안 어떻게 됐니? 과연 잘살게 되었니?"라며 반문도 하십니다. 결국 성전을 외면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그들의 삶도 또한 성전처럼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렇게 바쁜 만큼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그동안의 삶의 태도를 살피며 삶을 나누어봅시다.

### 2. 기쁨을 위한 새로운 행동 (7-11)

2.1. (관찰) 결국 그들의 비참한 삶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1:9b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 )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 )을 짓기 위해 ( )

2.2. (관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 1:7 ...너희는 자기의 ( )
- 1:8a 너희는 ( )에 올라가 ( )를 가져다가 ( )

2.3. (관찰) 새로운 행동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8b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 ) 또 ( )

**2.4. (나눔3)**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성전으로 인식하는 지평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시78:69; 19:4b-5a; 사40:22등).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기중심적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자리로 어서 오라는 촉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청춘 같은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는 누구의 말처럼, 한 번도 사명에 의해 타오름 없이 이러쿵저러쿵 말만 늘어놓는 것은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부담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이것을 위해 불타오르다 버려진 연탄재가 되어도 좋을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어떤 삶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 ㉠ 함께 기도

자기 집짓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붙드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